所謂日

祥氏七黄河의北

州撤退か9日

一週紀念式会開き口の側立一週年配念式会開き口が創立一週年配念式会開き口が見り遊戯り唱歌等入真関博也が見り遊戯り唱歌等入真関博力のののではかけた感想ののではかけた感想のではない。

撫順在留同胞

端午節과

各

地運

市民大運動會

에

◇愉快望か豆의消

(東京電)

脅。傳

하

群山傭人會名變更群山府所人會가去二月中一集會禁止臺當寺界行前四三既報針如奇然中等四大會臺開寺五十十十年會新多群山脈友組合の三更更奇會不多群山脈友組合の三更更奇

馬山農村教育會の外經營하는陽 標、山湖兩夜學校の外足以上二十九日山湖運動場の外運動會 好老少의觀客の人山人海景望今 好老少의觀客の人山人海景望今 好近來稀有의大路况裡の豫定叫 加히五十餘種의競技景與味の別 終了하고無事散會하8代日日 (馬山)

會豆開하고左의案件♀討議决定例評議會壹臨時議長金容浩氏司後五時早司同會館内の分五月月

歌鮮日報任實安局

安東鞦韆會

一、今年度豫算案会修正直次一、昨年度決算案の對하いに檢,一、昨年度決算案の對하いに檢,

泗川郡民—

運動會盛况

運動會

支局員 澳氏名

朝鮮日報社長李貞樹

任實郡任實面二道里

其他决議 市榮會の

八

の分左外如が局員会任用

日第二普校에서

む卅三種

日司(元山)

手退

3日名解統一

河南州

盛大。學

朴永彦《愛輪自轉車店員》)三

泗川水料金

002642

きり

大盛况られり 展北安東青年同盟の分と来陰五 月五日天中節上司言하고자當地 曹練兵場の鞦韆大會言声催하司 中に可申請者など享受かり司賞 品を山積かの大盛况ら漁期むい 日中C安東)

支局長 曹 光 州

支局位置 光

から 創建立スクイ コリ 都巡察使鄭彦信の二公의 リーのと宣祖十六年(癸

列南百成氏로選定哲ス、庶務部長趙鍾九氏辭免む代

おお今の日変職諸位に照視が全本支局の名在外如の局員会任用

朝鮮日報社白

總務兼記者 鞠

領手山銀色州友局自輸記者鞠 烁 鎭

界碑建立

江北七百里。

即の成吉道兵馬節度使金宗瑞乃を置から、 本郎古 雲龍堡 雉城の郡がら 此地歴代由来の名稱の郡に宗二年の兵馬節度使い 本郎古 雲龍堡 雉城の

城의南北

一、支局名稱の人物の一、支局名稱の人が、大利の人が、大利の人が、大利の人が、大利の人が、大利の人が、大利の人が、大利の人が、大利の人が、大利の人が、大利の人が、大利の人が、大利の人が、大利の人が、大利の人が、

江東 不開江東邑の外元 本報支局後接の豆來陰五月五六七의三日間邑內萬柳亭前廣場の 三等廣牛一頭二等中牛一頭 三等廣木一疋の中か可一般의多 一匹其他(新幕)等大责牛一匹其他▲二等黄 牧島公普遠足 釜山府 瀬仙町牧島公立普通學校の外に まニナ七日午前八時の全校生徒 まニナ七日午前八時の全校生徒 まニナ七日午前八時の全校生徒 地面 1 二學年の大新洞水源地 五六學年の2 松島海邊の1 三分班寺の春季遠 2 2 会行寺 8 (中立(牧島)

紫雲英獎勵

記憶 者象

朝鮮日報全州支局白

白

란

一、支局員職氏名
一、支局位置
一、支局位置
一、支局位置
一、支局位置
一、支局位置
全州大和町九八番地
一、支局位置 おおくりの日愛顧路位」と照応から本文局の分左外如り局員の近任用 支局長 尹 朝鮮日報社自 安 昌

郭山 中行事至城午佳前 告

かのイタリ変曖略位に脱売が全本支局の分左外如り局員会任命

|一等悪牛一頭▲比等外도賞品||一等悪牛一頭▲比等外도賞品|

認為使記者 金 在 軫 朝鮮日報江陵支局白

朝鮮日報社自長 黄 基 河

支局長 黃

一、支局位置工陵郡邑內一、支局名與 工陵支局一、支局名與 工陵支局不知可設置的人

▲宇垣總督代理國境巡視中去世 行委員)忠南北道記者大會準 行委員)忠南北道記者大會準 行委員)忠南北道記者大會準 方 人

文氏聲討

突然禁止

釜山署에서

◇内容=使用料金의後收 三總督○内容=使用料金의後收 三總督○原替=使用料金의後收 三總督○原替=使用料金의後收 三總督○原替=使用料金의後收 三總督○原替=使用料金의後收 三總督○原替○原析○原析○原析○原析○原析○原析○原析○原析○原析○原析○原析○原析○原析○原析○原析○原析○原析</li

農民組合創立

地方浸筆

州振興會

교육 한 사로 보고 한 시크로 함께 () 이 시크로 함께

M 合 會 創 立

演藝弘

三人共同。ミ

巡查輩作黨毆打

金外三의外喜ら至外おい

◇楊平警察의無理

어어 지난이십오일에 당하하아시격련(京家廣湖)

宇實調査 から記者で

하분 에 볼

覆審無罪判

사실조이되어 물(石)에 머리를 도하였드바 드리

是明의종亚보唇亚外个金亚 正の私 当星四岁 的外 全い 五

教徒爭奪戰猛烈

乖候是養蠶不况 配達不能郵便物

李中편量의查替是不 原因。發信人oT不注意 八千餘通

本)물립러가 있습으로 금년 자)물립러가 있습으로 금년 자)물립러가 있습으로 금년 자)물립러가 있습으로 금년 자)로 이 부산수도과 (水道課) 자는 급수(給水)을 위한(期) 자 이루일일일부터 오건(일반) 도 오후에시까지 네시간동안 도 오후에시하지 네시간동안 다 리수들하고 그외시간 야간(夜間)에는 수도물참그

分号 あらかせい 当事1月

을어 잠을이하야 주민의사

偽造銀貨橫行

早 内 小 号 か 小 今 き む い 고

一般의注意가必要

리민이 런시하야 동면면

近山牧島内の

建雄辯

이날의장거는미리예긔

자의후의를합기위

마하는말이아모리 게상이 이러 할지만도 당반이라는 일후이업 스면 살이 시에 한 일수업스면 또 그랜만아니라 당반의 일상일당

自働電話書

公衆電話呈

釜山牧

日 六月四日(端午)午後、維辯大會順序

水道給水制限

个報江景支局紀念

라(장정)

受打破하べ 黄金町南町

媤母의虐待

밤이는 일본에서건너

정의가있서 그러한지 공부의바만생각하여 구장을 개신치아니 定總不法主張 金組當局無理

고향교(鄉校)해출합하게되다면 학세에 자손에게 그만한 땅팡이 업다는등의 여러가지의 감상리 되었으며 돈과혹은 단당을내게 모자에게는 곳랑반이 되었다는

아다니는것을 동리사람이 발

対はほのテオ

上大会ロ コロ

曉頭 에 毆打致死

등이 현실(玄哲)씨는일등이신국 등안 여러가지 방면으로되지만 후노력을하야 왓스나 불행히한

는 독월일의 다 (朝鮮城場)과 단 왕사(開成社)의 다 상실관에서

では、またいので、単次館)外がである。 大学ので、「本学」というない。 「大学」というない。 「大学」というない。」 「大学」」 「大学

▲玄哲金亥賴兩氏新加入

평특박원군박된면남부동 (平北 博川郡博川面南部洞)에사는 김 梅女)는 지난이심산일에동리압 대당장(大學江)에에커죽이려고 인데현월시가급번에조선국장을 전하고 통지하였습이로 자기의 인을 듯건대 원기장 안데 이게 그렇는데 이게 그렇는데 이게 그월 다음이 자기의 아버지는 이게 인터 이게 그십 살 이 다니 구박이지 심하여 다시의 모생 이지 보이지 있다가 의심하여 다시의 모생 이지 일이 지원하여 다시의 보이지 말했다. 面長が川歎願里民大會登五

妻의不貞含憎惡から

(小心に母を(玄哲)火)

金組書記
가

가하야기의가리죽인것이라더라 기하야기의가리죽인것이라더라

一分を対けつ日で四(李皓白)のスプローを、一人家夜半侵人

교피도합니이로 아동아이 되다 모파도합니이로 아동아이 보이 이 지나들 이신철 등에 사 오화면생도 빠수십명이는 일계히 동매주화을 하셨습이로 등교교장이 창항마조하여 선호

(忠南洪川郡明德公立普校) 에 (忠南洪川郡明德公立普校) 에 기진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기진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기진되는데도 방안하고 보질의 すらんせるかへた十つステムコ 李的分七 引起 收季市

洪川公普盟休

대무슨오속한 재주가 있거든호 는못하겠습니! 으로오케어졌다 로부자는 의 그용도가

쓰기되었다 그런나 자기의사유 로심청중인자 거째이원자 고대를 이가뛰어들었다 은숙

城郡玄原

立)으로 전 변기대로 내노한면 공립(公立)이로 하야도(道) 에서 경영토록 하겠다되고 대답하였다

명자네가 그돈예일리는 만부한 두분한자리고 나는 돈뻐원이나 조히어터 먹을레니!

「르트한당보인스면 지 다구히 롱대고인겟나!!

지두발기가 그림소리할유면 오 지두발기 하하니 기 저말이야 결국예우지는야홍 스면 자네에게

무리닷을내게 이도쓸사람은 별 무리닷을내게 이도쓸사람은 별 우보가 자비그런소리는집

个是五州臺 经时间的 古色三

足数を対処器の立の

유민리하아를 흥합될다 지지하이 라는데 용이하 회복되기 어렵다 대라(무단)

端午上리己

素人劇開催

断末魔의兩班群

農民が汨騙財

時此上奏をハ井をい立

南平에생礼怪事實

并漫内原村

延金朴白李金李金権科 1257年 28打數29 5安打1 4三數1 4三數9 5四死 9 2次數 4 6段編 8

松延

7000年100日

지ン는 크다란격정이생짓다그것 의 사가 보고 사람이 생짓다그것 의 사람이 모든 왕은학 다 가 보고 사람이 있다고 것 의 사람이 나는 하나 나는 하나

다 의 커다 의를 노아서 뜻이 가래 이 일만원의도 음이 어느면 해가 다 그리나도 만 카위하여 자기의 수정(手形)을 몰리 다 일만원의도 음이 어느면 배상이 모 손을 펴보았다 그러나도 요즘 秋 十 写 本 ら 可 ら

列星の量个小台気中

우지 위원들이 자자일이 식어지

がる(精心)可思介(李爾秀)がる

노인 바리성학자를 사이로하고

모양이 어디까지나 부자 그의안하는 그의친구이 복이한 동안이 조고막해 주인의레면을유지하였다 조고마케 아귀

어른外名の星

아이들싸움이

도한만원대주리나?





전조선 주요도시의·시내가회에 설치한 자동면화 (自伽電話)는 최근에이르면 자동연화(自伽電話)는 학교(되기가 쉬운까닭에 대신국 기외 등 (의기가 쉬운짜닭에 대신국